

7/24/22

설교 제목: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5장 1-18절

- (요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절관주** 신 5:12
-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요 5: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 (요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 (요 5: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 (요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 (요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절관주** 마 9:6, 막 2:11
- (요 5: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 (요 5: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 (요 5: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 (요 5: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요 5: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 (요 5: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 (요 5: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본문은 본서에 기록된 8 개의 표적(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포함) 중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일이며,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 가에서 38 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신 후 상당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요 5: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대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인 무교절(유월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양문은 북쪽 동편에 위치해 있었으며
유일하게 통과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 비롯한 가축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갔으며
옆에는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양문 곁에는 큰 광장이 있었고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양문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을 양들이 들어오는 은혜의 문이니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
있었던 셈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 나 되는 상당히 큰 못이었습니다.
행각이 5 개나 있었다고 하는 것만 봐도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5: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요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 못과 그 못을 따라서 지어진 행각은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너리하게도 그 아름다운 곳이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베데스다 못에는 옛부터 전해지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이 전설대로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 못의 물을 휘저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시선을 못에 고정시킨채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은 간혈천으로 간간히 온천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 같은 병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허상을 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른 여덟 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 병자를 찾아 가서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요 5:5) 거기 서른 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5: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그냥 “예”라고 하면 될 것을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하고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자신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요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 왜 하필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38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36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6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제 식민지 시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 시내산을 거쳐서 2년만에 가데스바네아(바란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민 13:17)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겟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민 13:18)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민 13:19)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민 13:20)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40 일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민 13:30)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 13:31)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민 13:32)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 13:33)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야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민 14: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 14: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 14: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노하시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후 38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민 14:22)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민 14:23)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 출애굽을 한 세대는 여호수와의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아무도 가난한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털어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죄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 앞에 두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을 살면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8년'은 훈련의 기간이자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병자들 중 38년 된 병자를 택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짓거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요 5: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 5: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신들이 확대 해석하여 안식일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그 법을 들이대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딱 막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중보다는 법 자체를 중요시 여겼고 법에 쓰여진 문구만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heart 곧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 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병 나은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요 5: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요 5: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서는 고침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셔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요 5: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죄는 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요 5: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쳐 주셨는지를 몰랐으나 성전에서 그분을 다시 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진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치신 이는 예수시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말을 병 나은 자로부터 듣고 예수를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박해합니다.

(요 5: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 5: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공로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시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